‘임의 뜻 따르리’ 5·18 추모열기

참배객 작년의 2배… ‘광주정신’ 계승 다짐

서울서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최초 공개

5·18 민중항쟁 33주년을 앞두고 추모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단체로 버스를 빌려 타고 국립 5·18 묘지를 찾는 중·고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5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기념 행사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사무소는 14일 두암중 학생 600명이 단체로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등 참배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민주묘지를 다녀간 참배객은 6만89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참배객(2만5336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게 관리사무소측 설명이다.

묘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수박람회 등으로 지난해 참배객이 크게 줄었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 참배객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기념식을 앞둔 17일부터 참배객들이 늘어나는 등 추모 열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동행’ 회원들 헌화·분향

○…민주당 신계륜 (서울 성북 을·환경노동위원장)의원이 이끄는 ‘민주동행’ 참배단 일행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14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하나 의원 등 ‘민주동행(대표 신계륜)’ 소속 회원들과 이석행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한 130명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방명록에 “광주항쟁, 이제 미래로 세계로”라고 쓴 뒤 참배자들과 함께 헌화·분향했다.

신 의원은 또 자신의 동기 동창인 박관현 열사 묘지와 윤상원 열사 묘지를 찾아 헌화를 하고 큰 절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잠자는 민주당이 항쟁에서 다시 배워야할 때가 지금이며 그 핵심은 시민의 역동성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광주의 역사·뿌리 체험

○…5·18 민주화운동 33주기를 맞아 한국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14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단법인 광주학교(교장 송갑석)와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5월 광주를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날인 14일에는 ‘무등산 역사길’ 트레킹을 통해 의향(義鄕) 광주의 거대한 역사와 뿌리를 체험하고, 둘째 날인 15일에는 5·18 국립묘지와 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다.

5·18 묘지 참배에는 80년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광주시 협력관 이상 간부 참배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 협력관 이상 간부, 5개 구청장과 시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간부공무원 97명은 15일 오전 8시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헌화·분향한다.

이날 참배에는 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도 함께한다. 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참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공무원 700명 합동 참배

○…전남도청 공무원들도 기념일에 앞서 15~16일 5·18 묘역을 참배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도 직원 700여명은 묘역 참배에 이어 제1·2묘역을 순례하면서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줍기 등 산사 활동에도 나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오는 16일 실·국장을 비롯한 직원 350여명과 함께 5·18묘역을 참배한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 13일 도내에 거주하는 600여 세대의 5·18 유가족 600여 세대에 위로 서한을 발송했다.

서울기념사업회, 18일 기념행사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서울행사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악보 원본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회는 이날 행사 참석자에게 ‘님을 위한 행진곡’의 악보가 그려진 손수건을 나눠줄 예정이다.

지난해 5·18기념 청소년대회에서 수상한 시 ‘29만원 할아버지’에 곡을 붙인 동요도 이날 처음으로 공연된다.

사업회는 이날 시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국가반란 수괴 전두환씨 추징금 시효’를 주제로 국민대자보를 제작하고, 그 전날 저녁 서울광장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 상영회도 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술 마신 시간 30분→2시간, 속옷차림→알몸

윤창중 성추행 추가의혹 확산

호텔방 추행땐 강간미수 적용

‘런닝맨’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윤 전 대변인의 자택으로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방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자와 여행용 가방 각각 1개씩을 전달했다. 사진은 이날 이들 중 1명이 기자들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전후 행적이 퍼즐조각 맞추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와 청와대 및 주미 한국대사관, 주미 한국문화원 관계자, 방미 기자단, 워싱턴에서 윤 전 대변인의 차량 운전기사, 호텔바 바텐더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다.

◇호텔바서 술 마신 시간 ‘30분’ vs ‘2시간’=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7일 저녁 9시를 넘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을 마쳤다. 이어 피해 여성 인턴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백악관 인근 W호텔 지하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 당시 “운전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한 상태에서 30분 정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운전기사와 바텐더 등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자정이 가까워져 바가 문을 닫게 되자 호텔 로비 소파로 이동해 계속 마셨다”고 언론에 증언하고 있다.

또 이 자리에서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언론 “호텔방서 알몸으로 엉덩이 만져”… 靑 “사실 아니다”=윤 전 대변인이 자신과 방미 기자단의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에 들어온 시간은 8일 0시30분 전후라는 것이 그를 목격한 청와대 관계자와 일부 기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어 윤 전 대변인은 호텔 2층의 청와대 임시 행정실에서 새벽 2시 정도까지 술을 마셨고, 호텔을 나갔다가 5시 전후로 만취된 상태로 돌아오는 장면이 현장에 있던 이들에 의해 목격됐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경제인과 조찬간담회 행사(오전 8시 시작)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7시30분 전후로 호텔을 떠나기 전까지는 숙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간 윤 전 대변인 숙소에서 추가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서 속옷 차림으로 나가보니 여성 인턴이 있어 ‘여기 왜 왔어. 돌아가’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는 “여성 인턴이 찾아왔을 때 알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일부 언론은 윤 전 대변인이 ‘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는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보도”라는 입장이다.

◇현지 한국문화원이 윤창중에 공항까지 차편 제공했나=윤 전 대변인은 조찬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이남기 홍보수석과 영빈관 앞 도로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수석의 설명으로는 이 시간이 오전 9시30분께라고 한다.

윤 전 대변인은 이 수석과 만난 직후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전 대변인이 홀로 택시를 타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언론은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한 차편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 美에 ‘윤창중 성추행’ 신속 수사 요청

통상 절차·규정 따를 듯… 적극 수사 여부는 ‘미지수’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지 수사가 속도를 내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변호사 등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요청은 미국 워싱턴DC 경찰 등으로서는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사건이 양국 외교 관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미국 경찰이 현재로는 이 사건을 ‘단순 성추행’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는 아예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만 해도 “우리는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미국측이 한국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직원이 술을 마셨던 백악관 인근 ‘W호텔’의 지하 바나 이들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 로비나 복도 등의 폐쇄회로(CC) TV를 점검하는 등 수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한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가족과 성추행 의혹 사건의 법적 대응을 논의했던 A변호사가 윤 전 대변인 측에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14일 “(윤 전 대변인 가족에게)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사건 선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

환경부 장관 등 참석… 시민축제 형식 행사

환경부와 광주시는 “오는 23일 무등산 증심사 일대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 산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무등산의 해결 과제인 사유지 보상 문제와 정상 군부대 이전, 무등산 보존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계자는 “기념행사 날만 확정됐으며, 세부적인 일정은 조율중에 있다”며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시민축제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애초 지난 3월 4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발효시점에 기념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장관 임명 지연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기됐으며, 다시 일정을 잡은 같은 달 30일에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통령 참석 여부 등에 밀려 무산되기도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공고 제 2013-20호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지역산업평가단장 채용공고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에서는 전라북도의 특화산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평가 ·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지역산업평가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채용분야

부 서	직 위	채 용 분 야	상주 근무지
전북지역산업평가단	단 장	특화사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총괄	전북 전주

2. 임용조건
가. 임기제 : 3년, 계약직 나. 보 수 : 법인 규정에 의거 지급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가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자격
○ 지역산업 · 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평가단장으로서의 비전제시 및 리더십, 교양과 인품 등의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기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 면접심사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소정양식은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http://honam.irpe.or.kr) 본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6. 3(월) ~ 6. 11(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에 한함)
다. 접 수 처 :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운영지원실
-(500-70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7. 기타사항
가. 전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집 관련 문의처 : 전화 062)602-7152, 팩스 062)602-7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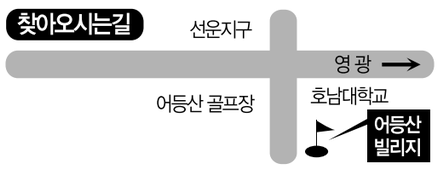
2013년 5월 15일
(재)호남지역사업평가원 부서장 추천위원회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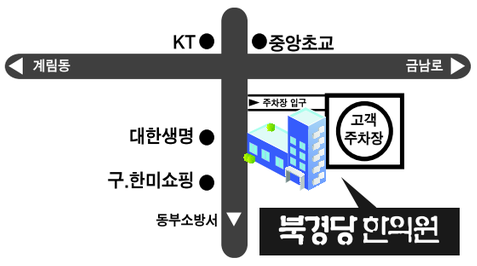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호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內)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 형 사 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분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 당 / 청 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 무 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 충원시 까지
● **급 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 1 통
2) 사진 ····· 2 매
3) 주민등록등본 ····· 1 통
4) 건강진단서 ·····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oIII@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